

쇼팽의 봄

1.

메마른 겨울이 지나가고 연꽃동 골목에 따스한 바람과 함께 꽃이 피었다. 골목 맨끝 단독주택 2층에는 5년 전부터 항상 10곡의 클래식 리스트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었다. 그중 6번째 곡 Chopin: Ballade No.1 In G Minor, Op.23 이 나올 때마다 쇼파에서 초점을 잃은 채 음악을 감상하고 있던 할아버지는 어딘가 슬픈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마다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60세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할아버지 손에 빠다코코넛 5개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청소를 다시 시작했다. 과자를 받은 할아버지는 다시 조용해지고 초점을 잃은 채 눈을 치켜뜨고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양 입을 병긋거렸다. 그러다 결국 말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다가 해가 저물 때까지 클래식을 감상하며 잠이드는 것은 할아버지의

일과였다. 할아버지는 빠다코코넛 5개를 손에 움켜쥐고 다시 초점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했다. 어김없이 6번째 곡이 나올 때 할아버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몸이 기억하는 몸짓이었다.

그때 창문 밖으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고물을 싣고 나르는 트럭 한 채의 확성기 소리에 음악소리가 묻혀버렸다. 음악소리 대신 확성기 소리를 유심히 듣던 할아버지의 초점없는 눈이 무엇인가 생각이라듯 난 듯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그는 어디론가 홀린 듯 가정부의 눈을 피해 집밖으로 나갔다. 5년만이였다.

할아버지는 바깥을 나와 걸으며 눈을 감았다. 발은 그저 걸어가지는 대로 내맡겼고, 손은 다시 허공을 향해 피아노를 치는 시늉을 했다.

그때만큼은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세상으로 보였고 과거로 돌아간 듯 했다.

2.

뜨거운 여름 햇볕보다 강한 조명 아래에서 주름하나 없이 젊어보이는 그는 단정한 수트를 맞춰입고 넓은 무대 중앙으로 자신감있게 걸어간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하계 아무런 긴장감 없는 모습으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한다. 그리고 모두의 찬사와 환호를 받은 그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기대를 부풀며 무대에서 내려온다. 무수히 많은 스포트라이트와 각종 인터뷰, 그리고 끝없는 관심을 받는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는 아버지와 친구 용남.

함께해서 더 기뻐던, 할아버지의 젊은시절 중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었다.

할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골목길 한 레스토랑에서 쇼팽 발라드 1번 노래가 흘러나왔다. 5년사이 많이 달라진 골목길, 신축 빌딩 공사로 혼잡한 거리 사이로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공기는 매우 탁했다. 할아버지는 주변 소음에도 아랑곳 았았고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길이다 짜여진 듯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서울역에 도착했다. 마음이 급했던 할아버지는 이제 막 도착한 아무 기차에 올라타려고 했다. 할아버지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역 승무원은 할아버지에게 기차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차표가 없었던 할아버지는 아무말도 하지못한 채 승차권 판매소 앞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세요?”

“ ... 대...”

“대구요?”

“ ...대진.”

“대진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오는 대진행 기차에 올라타고 다시 초점없는 눈으로 창밖을 구경했다. 생각에 잠긴 채 풍경을 구경하고 있으니 손에 힘이 풀려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기차표를 떨어트렸고 허리를 구부렸다. 그때 전혀 느끼고 있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바지 주머니 속 묵직한 물건이 느껴졌다. 그는 바지 속 물건을 꺼내보았다. 오래되어 노랗게 물들어 버린 작은 원형통이었고 통 안에는 빛바랜 필름사진 2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때문이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의 손은 슬퍼보였다. 순간, 뒷좌석 어린 남자아이가 할아버지의 손에 과자를 쥐어주었다. 아이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을 호기심에 가득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잠잠해졌으나, 여전히 표정은 진정되지 않아보였다.

어느새 대진역에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남들보다 빠르게 내려 또다시 어디론가 홀린 듯이 절뚝거리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대진역, 한적한 골목 바로 앞, 낡은 만화가계를 보자 할아버지는 잠시 가게를 뜯어져라 바라보았다. 너무 오래된 간판은 글자색이 없어져있었고 유리문은 누런 먼지로 가득 덮힌 채 잠겨있었다. 정처없이 떠돌다가 도착한 이 가게. 할아버지는 이 가게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꿈뻑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항상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의 풍경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초등학교시절 친구들과 그려놓았던 담벼락 낙서, 낡아 해져버린 수선가게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가 책방 카운터에 앉아있으면 피아노를 사달라며 재촉하였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의 손에 매일 다른 피아노 악보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게 받아왔던 악보들이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 책꽂이에 놓여있었고 창틈사이로 오래된 책방 냄새가 할아버지의 코를 스쳤다. 그리고 추억했다.

벚꽃에 가득 쌓여 모두가 웃고있는 공원을 지나고, 재건축된 빌딩 골목을 지나고, 또 여러 잡동사니 냄새가 섞인 정겨운 시장을 지나, 학생 한명 없을 것 같은 허름한 초등학교,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걸어나가고 있을 때, ‘찰칵’ 익숙한 필름카메라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눈앞에는 멜빵 바지에 나비 넥타이를 맨 자신과 또래로 되어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다.

“대익아!”

눈에 초점이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도 금세 노인을 알아봤다.

“ ... 친... 구야... !”

어눌한 발음으로 외쳤다.

할아버지를 바로 알아본 노인은 할아버지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노인은 할아버지가 반가운 듯 덩석 안았다.

“진짜 대익이냐... ?”

멜빵바지를 입은 노인은 믿기지 않았는지 할아버지를 재차 확인하고 그의 세월이 묻은 주름진 얼굴을 만졌다.

“젊을 때는 참 잘생겨서 이놈은 언제 늙을라나 했는데, 우리 둘 다 세월을 같이 먹은 건 맞구만!”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용남은 할아버지와 12년동안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며 학창시절을 보낸 오래된 친구였다. 용남과 대익은 같은 동네에서 가족과도 매우 친했기에 서로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자라온 각별한 사이였다. 순수했던 시절, 말뚝박기를 하며 유치하게 싸우기도 하고 중학생시절 첫사랑과 이별 후 서로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영원히 함께할 친구라는 것을 서로는 알고 있었다.

용남은 대익에게 해야할 말이 많은듯 안절부절하며 입을 뗐다.

“미안하다, 미안해…….”

용남은 대익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3.

1970년,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할아버지는 한 여자와 곧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관을 막 차렸던 용남에게 수줍게 부탁했다.

“용남아…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예순이한테 피아노를 치며 고백 하려고 하거든…

혹시 네가 사진으로 남겨줄 수 있냐?”

용남은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차가웠던 한해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프로포즈날과 비슷한 시기, 대익은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독주회를 개최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개인 연습실을 만들어 피아노를 놓기로 했다.

마당 앞 푸른 잔디가 피어나고 나뭇가지에 무성한 풀들이 자라나는 어느 봄 날, 대익은 기대한 피아노를 구매해 용남과 함께 피아노를 옮기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롭게 피아노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반대편에서 용남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어… 어… 안돼!”

용남은 실수로 피아노에서 손을 놓아버렸고, 무거운 피아노는 대익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피할 틈도 없이 빠르게 피아노는 대익을 덮쳤고 결국 두 다리가 피아노 사이에 갇힌 채 의식상태를 잃고 쓰러졌다.

대익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집도, 학교도 아닌 병원 천장이었다. 자신이 누워있는 오른편에는 예순과 용남이 앉아 있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자신의 다리에서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익은 두려운 듯 밑을 내려다 보았고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한 다리는 절단되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다. 자신의 다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할아버지 귀에 자그마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익아…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간 노력해왔던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고에 대한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았지만, 대익은 용남의 잘못이라는 것은 짐작했다. 이후 그에게 있어 1년간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독주회와 함께하는 프로포즈의 기대는 무참히 사라져 버렸다. 대익에게 이 일은, 자신을 이런 위기에 놓이게 한 용남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었고, 함께 지내온 세월을 잊어버릴만큼 충격적이었고 용납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 후, 대익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기대어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조그만한 소리만 들려도 예민해지고 난폭해지기 일쑤여서 점점 안정을 되찾기 위해 살아오다, 가장 평온했던 시간에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때마다 대익은 연주하는 상상을 하며 손을 들어올려 피아노 연주 시늉을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익의 귓전에는 쇼팽의 피아노 노랫소리가 맴돌았다.

4.

용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으로 할아버지를 이끌었다. 사진관 안에는 이곳 동네 주민들의 소중한 추억들이 각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무표정은 어느새 사라져있었다.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채 사진관을 구경했다.

용남은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대익, 이거 기억나는가? 50년 전에 니가 결혼식 전날 꼭 이 노래로 피아노쳐줘야 한담서 결혼 앞둔지 하루 전에 학교 음악실에서 이곡 밤새도록 준비했던 거?”

노인이 건넨 건 칠이 다 벗겨진 오르골이었다. 오르골을 돌리자 Chopin: Ballade No.1 In G Minor, Op.23 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왜인지 할아버지는 노래를 듣자마자 허공에서 피아노를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르골을 주시한 채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5.

50년전 할아버지의 결혼식날이 다가올 때 즈음, 용남은 대익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대익에게 추억이 있는 노래를 넣은 오르골을 직접 제작했다.

“김대익! 짜식 예순이한테 피아노 한번 쳐준다고 그렇게 요란을 떨어서 말이야 그냥 내가 오르골로 한번 만들어 봤어.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을거야, 결혼 축하한다!”

대익은 오르골을 받아 매일밤 머리맡에 두고서 오르골을 틀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연인인 예순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허공에 손을 들어올려 연주하곤 했다. 매일밤 노래를 들으면 들을 수록 콩쿨과 프로포즈에 쓰일 쇼팽 발라드 1번에 애정이 스며들었고, 대익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순간들을 그려나갈 생각으로 기대감에 벅차올랐었다.

그러나 발을 쓰지 못한 이유로 매일밤 자신이 상상해왔던 계획은 모두 흐트러져버렸다. 예순과도, 콩쿨과도 이별해야만 했다. 더이상의 미래는 그려지지 않았고 자신을 지금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영남에 대해 분노와 불만만 쌓여갔다. 더이상 영남과 함께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영남을 떠올릴 수 있는 과거의 물건들을 모조리 처리하는 것이 급했다.

그리고 대익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영남이 손수 만든 오르골이었다. 대익은 오르골을 보는 순간 생각했다.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키워왔던

기억들을 버려야했던 것일까. 그날 결국, 대익은 용남의 사진관으로 가서 용남의 눈을 피해 오르골을 놓았다.

대익은 집에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미련과 기억은 그리워도 그리워할 수 없었다.

6.

대익은 주머니의 필름사진 통을 용남에게 건네주고 용남의 손을 어루어 만지 듯 붙잡았다. 용남은 오래 전 일들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대익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러나 대익은 곧장 시간에 쫓기듯이 어디론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대익이 사진관에서 나간 뒤 용남은 대익이 전해준 낡은 필름통을 열었다, 그 속에는 어린시절 그려놓은 둘만의 싸인과 할아버지의 연주회를 마치고 피아노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은지 30분, 대익은 옛 동네를 전부 기억하는 것 같았다. 발걸음이 자연스레 옮겨지는듯 보였지만 왜인지 계속 같은 주변길을 맴돌며 대익은 점점 불안한 기색을 내보였다.

“으... 어...”

절망스러워보였다. 대익의 얼굴에는 점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매우 다급해보였다. 그는 좌절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 왼쪽 주택너머 낮익은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음악에 이끌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도착한 곳은 50년전부터 대익이 살아왔던 주택 앞이었다.

주택은 낡고 허름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듯 했다. 형태는 50년 전과 같았다. 그간 아무도 오지않고 손대지 않은 듯 보였다. 대익은 대문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집 안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때 바람이

붙며 대문은 잠겨지지 않고 자연스레 문이 열렸다. 대익은 낯선 표정으로 집 안을 들여다 보았다.

주택 안은 50년전 그대로였다. 50년만에 여는 연습실 내부는 거미줄 처지고 성한곳 없는 그랜드피아노가 놓여있었다. 대익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레 집 안을 들어갔다. 예전과 같지않은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집안 가득 퍼진 먼지들은 할아버지의 지난 50년의 인생을 비춰주는 듯 했다. 하지만 옛날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소파, 카펫, 식탁 등 모든 것은 그자리 그대로였다. 대익은 소파를 만지며 과거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다. 숨을 내쉬자 옛 자신의 활기가 다시금 느껴졌다. 그리고는 대익은 겨우 기억을 더듬어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들어설 때에 그의 발에 무엇인가가 밟혔다, 바닥에는 악보가 떨어져있었고 그는 악보를 유심히 바라봤다. 악보는 쇼팽 전집이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난 듯 다시 주택에서 내려와 앞 마당으로 절뚝이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당 중앙 먼지쌓인 피아노에 앉았다. 그리고 피아노에 조심스레 손을 올려 건반을 한개 한개씩 눌러보기 시작했다.

50년간 그대로 놓여져있던 피아노는 외관은 50년전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지만 소리는 성한 곳 없이 망가져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의족을 낀 채 페달을 밟으며 피아노를 연주하자, 할아버지에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맑고 정확하게 들려왔다.

7.

20대의 누군가를 위해 수도없이 연습했던 곡 Chopin: Ballade No.1 In G Minor, Op.23 이었다. 그는 6번째 곡을 연주하며 스무살 그때, 본

적이 없는 애뜻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위해
할아버지는 50년을 바쳐 그리워하던 연주곡을 아름답게 마무리지었다.
할아버지는 피아노와 한몸이 된 듯 눈을 감았다.
연주가 끝나고 몇초 뒤 피아노를 둘러싼 마당에는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소리가 메아리쳤다.